

한국 사회 청년 세대는 무엇을, 어떻게 꿈꾸고 있는가?: 빈곤 청년과 비빈곤 청년의 꿈 준비 경험을 중심으로*

김지혜** · 정익중*** · 조윤호**** · 남미정*****

Ⅰ 알기 쉬운 개요

오늘날 한국 사회 청년 세대는 '88만원 세대', 'N포세대', '흙수저' 등으로 묘사된다. 청년들이 꿈을 포기한 세대, 절망과 좌절, 불안의 세대로 통칭되고 있는 이유는 청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청년 세대가 무엇을 꿈꾸고, 어떻게 그 꿈을 준비하고 있는지, 꿈조차 불평등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인 20대 빈곤 청년 5명과 비빈곤 청년 4명을 개별 인터뷰하였다. 그 결과, 빈곤 청년은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였으나 꿈을 꿀 여유도 없고, 진로를 함께 이야기할 가족이나 어른이 없어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대인관계 어려움 등을 겪고 있었으며, 꿈을 이룰 자신이 없었고, 힘든 현실과 타협한 새로운 꿈을 찾기도 했다. 반면, 비빈곤 청년은 자유롭게 도움이 되는 삶을 희망했으며,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꿈 관련 정보와 기회를 얻고 있었다. 주위의 격려와 지지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때로 주위와 비교하면서 위축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년의 꿈과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심리정서 지원과 정보 및 지지체계 제공, 진로와 자립 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 * 본 연구는 월드비전의 지원으로 수행한 “제3차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2022)” 연구결과의 일부를 전면 수정·보완한 것임
-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주저자, jhkim@nsu.ac.kr
-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ichung@ewha.ac.kr
- **** 월드비전 아동미래연구소 책임연구원
yoonho_cho@worldvission.or.kr
-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nomad_9612@naver.com

투 고 일 / 2023. 5. 23.
심 사 일 / 2023. 6. 27.
심사완료일 / 2023. 8. 8.

Ⅰ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 청년 세대가 무엇을 꿈꾸고 있으며, 어떻게 그 꿈을 준비하고 있는지, 청년의 꿈 속에 세대 내 격차와 불평등이 존재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청년 정책과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대 초중반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인 빈곤 청년 5명과 비빈곤 청년 4명, 총 9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주제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꿈의 내용 탐색 결과, 빈곤 청년은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으나 꿈을 꿀 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빈곤 청년은 자유롭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 둘째, 꿈의 경로 탐색 결과, 빈곤 청년은 주위에 진로를 함께 이야기할 가족이나 어른이 없어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으며, 비빈곤 청년은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꿈 관련 정보와 기회를 얻고 있었다. 셋째, 꿈 자본 탐색 결과 빈곤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과 대인관계 어려움, 꿈 관련 정보와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꿈을 이룰 자신이 없으나 때로는 힘든 시절을 극복한 경험이 힘이 되기도 하였다. 비빈곤 청년들은 주위의 격려와 지지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때로 주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위축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꿈의 방식 탐색 결과, 빈곤 청년과 비빈곤 청년 모두 자신의 적성에 맞고 보람 있는 직업을 찾고 있었으나 빈곤 청년은 힘든 현실과 타협한 새로운 꿈을 찾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년의 꿈과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청년, 꿈, 빈곤, 빈곤청년, 청년니트

I. 서 론

오늘날 한국 사회 청년 세대는 ‘88만원 세대’, ‘N포세대’, ‘흙수저’ 등의 용어로 묘사된다. 우석훈과 박권일(2007)이 20대 비정규직 임금인 88만원을 빗대어 집필한 저서 「88만원 세대」로 촉발된 청년 세대 담론은 2011년 경향신문의 〈복지국가를 말한다〉 특별 취재팀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신조어 ‘3포세대’를 만들어낸 이후, 인간관계와 내집 마련을 포기한 5포, 꿈과 희망을 포기한 7포 세대를 거쳐 ‘N포 세대’까지 확장되었다. 청년들이 꿈을 포기한 세대, 절망과 좌절, 불안의 세대로 통칭되고 있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청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 때문이다(정성조, 2019). 험난하고 불안정한 구직의 현실과 고용이 결여된 성장,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을 짓누르고 있기에(송동욱, 이기형, 2017) 이들은 자신이 꿈꾸는 삶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 비관하게 된다. 공정성이 사회의 화두이나 기회와 과정의 불공정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개인의 삶이 너무나 불안하기에, 한때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이제 9급 공무원을 꿈꾸는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었다(오찬호, 2016). 꿈을 꾸지 않고, 꿈을 포기한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는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청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와 사회에서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을 꿈과 희망을 포기한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고 꿈조차 포기했다고 단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우리 사회가 ‘N포 세대’의 항목들이 당연하게 청년이 꿈꾸어야 하는 것이라고 무의식적인 압력을 주는 것은 아닌가?(성연주, 김지애, 2017) 미디어와 사회가 생산한 비관적 청년 담론을 너무 쉽게 수용해 버린 것은 아닌가?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정말 꿈을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외적 조건에 의해 잠시 꿈을 유보한 것인가? 자신이 열망하던 꿈을 현실 가능한 꿈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는가? 청년 세대 내에 꿈의 불평등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청년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 문제의 본질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는 사회의 노력이 요구된다(이광석, 윤자형, 2018).

2000년대 이후 청년 세대 담론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데 비해, 지금까지 청년의 꿈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김석호 외(2017)는 한국 청년이 갖고 있는 꿈의 양상과 차원을 개념적으로 재구성하고, 구성된 개념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한 후 구체적 내용을 양적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청년의 꿈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고 심층적 탐색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척도 중심의 측정을 통해 청년의 꿈과 관련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성연주와 김지애(2017)는 ‘서울 미래세대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미래세대가 꾸는 꿈과 이 꿈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 탐구하였는데, 꿈꾸는 마음의 능력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조건보다는 사회이동성 인식, 기회불평등 인식, 사회자본이 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청년들을 꿈꾸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정우연, 조하영과 김석호(2022)는 ‘2016년 한국 청년 가치관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청년의 꿈이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양적 연구를 통해 청년의 꿈과 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청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꿈을 꾸고 있으며, 이들이 처한 환경이 꿈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를 통해 청년 세대 담론과 관련한 사회 문제의 본질을 당사자의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청년의 꿈 준비과정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개인 뿐만 아니라 환경적 맥락에서 청년들의 꿈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꿈은 개인의 심적 에너지를 발동시키고, 움직이게 하고, 실천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자원이며, 꿈을 꾸다는 것은 바라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고(김홍중, 2015),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이다(배영자, 심성지, 2013). 꿈은 주체적 삶의 기초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뜻대가 된다(김경희, 박근혜, 2013). 따라서 청년의 꿈은 무엇이고, 꿈을 위해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꿈을 포기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빈곤이 꿈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통해 현재 청년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 사회는 이들의 꿈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한국 사회 청년 세대는 무엇을, 어떻게 꿈꾸고 있는가?”이다. 구체적으로는 김석호 외(2017)가 꿈의 양상으로 분류한 꿈의 내용과 꿈의 경로, 꿈 자본, 꿈 방식의 네 요소로 구분하여 청년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언제, 누구의 영향으로 꿈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 꿈을 꾸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인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각자의 꿈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해 가는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꿈을 꾸는지에 대해 빈곤 청년과 비빈곤 청년의 경험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 정책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꿈의 개념과 요소

꿈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꿈을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램’ 혹은 ‘앞으로 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상’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이다. 정익중, 조윤희와 오은찬(2018)은 꿈은 미래지향적이라는 시간적 개념과 개인이 실현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이상향이라는 가치적 개념이 공존한다고 보았는데, 꿈이 분명하거나 구체적일수록, 실제로 꿈을 실현하며 살아갈수록 행복감이 높다. 김경희와 박근혜(2013)는 꿈은 그 자체로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통해 현재의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의미를 갖게 하며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였으며, 최수미(2013)는 꿈은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성취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꿈을 가진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 소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한편, 김홍중(2015)과 김석호 외(2017)는 꿈을 자본의 개념으로 해석하였는데, 꿈은 개인적 성향이면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강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꿈을 꾸는 능력은 ‘자본’이 된다고 정의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라 꿈-자본 수준이 차이를 보이며 복합적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더 꿈을 꾸고, 누군가는 꿈꾸지 못함으로써 꿈의 능력에 차이가 나는 불평등이 나타난다. 즉, 꿈꾸는 능력은 일반적인 ‘자본’ 특성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김석호 외, 2017). 김석호 외(2017)는 구체적인 꿈-자본 측정을 위해 꿈-자본의 구성요소를 미래에 대한 상상력,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지를 품을 수 있는 힘인 낙관성, 꿈이 달성되리라는 감정적 능력인 희망, 좌절이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외에 꿈-자본과 함께 꿈의 경로, 꿈의 내용, 꿈의 방식에도 주목하였다. 이는 앞선 연구(김경희, 박근혜, 2013; 최수미, 2013; 정익중 외, 2018)들에서 목표, 미래지향성, 삶의 방향성 등의 의미로 제시된 꿈의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꿈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여러 복합적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꿈은 삶에 대한 이상향이자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개인을 움직이게 하는 욕구이자 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꿈의 개념을 토대로 꿈의 요소를 도출해 볼 수 있는데, 김홍중(2015)은 꿈을 i) 욕망과 희망을 통해 구성, 교섭, 변형되며, ii) 실천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iii) 미래 소망 표상으로 정의하였다. 이 세 요소들을 분석해보면, 먼저 소망표상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으로

각 개인이 꾸는 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천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소망표상은 개인을 움직이며, 그들의 잠재능력을 이끌어내면서 시간의 전개 속에 개인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이는 꿈의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단한 교섭과 변형의 대상이 되는 꿈은 내적 욕망과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현실 사이에서 억압되거나 포기되고, 새로운 꿈을 품기도 하는데, 이는 꿈 자본 및 꿈 방식과 관련된다. 이러한 꿈의 요소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청년의 꿈에 대해 꿈의 내용, 꿈의 경로, 꿈 자본, 꿈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빈곤과 청년의 꿈

취업난과 고용불안정, 코로나19 등 불안정한 사회 상황 속에서 청년의 꿈은 복합적 모습을 띤다. 청년들의 욕구는 소소한 개인적 삶의 질 향상보다 직업적, 금전적, 관계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보이기도 하며(김석호 외, 2017), 희박한 미래 속에서 꿈을 축소하거나 유예하며 이전 세대의 청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문제, 불안정한 사회 속 생계를 위해 본인의 적성과 흥미 없이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박은하, 2018). 반면, 청년들이 경제적, 직업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미 추구하고 안정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결과도 존재한다(이지혜, 이선희, 2020).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속에서 불안정성은 모든 청년들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러한 불안정성과 좌절의 경험 속에서 얼마나 다시 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진로탐색이나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믿음과 자신의 수행이 만들어 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진로와 관련된 불안 요소를 감소시키고 꿈을 구체화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며(노경란, 2011; 김석호 외, 2017; 김민선, 고은영, 2020), 청년들이 겪게 되는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꿈꿀만한 존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박재연, 박희숙, 조윤희, 정익중, 2020).

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빈곤이 학업성취나 정서적 문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꿈은 개인이 속한 사회환경 및 배경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빈곤이라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은 진로역량 및 진로의식을 성장시키는 데도 많은 제한과 불평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구인회 외, 2009; 정성경, 박환보, 2022). 경제적 의사결정이론 중 기대효용이론에 따르면 빈곤 집단은 불확실한 미래인 꿈을 꾸지 않거나 꿈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선택을 하기 쉽다(Frederick, 1999). 실제 빈곤 가정 아동·청소년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불평등한 보상과 성과기대로 인해 꿈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외, 2018). 부모의 가구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은 직업역량, 상위 직장과 급여를 원하며(박은하, 2018; 김수정, 2020), 부모의 높은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진로 성숙과 직업포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권소희, 안현주, 정혜원, 2000; 유수복, 2013). 원지영(2019)의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다른 중위·하위 집단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는 진로 성숙 수준이 더 높고, 충분한 자원을 통해 여러 영역에서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물질·심리적 지원이 자녀들이 계층별 질서를 인지하게 하며 꿈을 발달시키고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다(김수정, 2020).

또한, 부모 세대 빈곤의 만성화로 인해 현실에서 좌절된 빈곤 청년의 꿈은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김지혜, 정익중, 윤은영, 2022). 학력이 낮은 아버지를 둔 경우 더 높은 진로 장벽을 인식하고 더 강한 열등감을 느끼며,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탐색형’의 꿈을 꾸며, 낮을수록 ‘소극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노경란, 2011; 이승진, 황아리영, 정익중, 2021). 이처럼 빈곤 청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의 권유로 인해 꿈을 포기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현실과 타협하곤 하며, 본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꿈이 아닌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기도 한다(이영광, 김민수, 김민주, 2014). 꿈을 찾아가고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학원 수강, 기기 구입 등의 물리적 지지뿐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지지 및 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김경희, 박근혜, 김성원, 2016; 유민상 외, 2022), 빈곤 집단은 비빈곤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며, 부모의 지지와 믿음의 필요를 더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외, 2018; 박재연 외, 2020).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로부터의 충분한 지원 부족은 자신이 처한 빈곤이라는 환경 속에서 꿈을 한정하여 결정짓게 하며(김은희, 2001), 꿈을 갖기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결국 꿈을 포기하게 된다(이영광 외, 2014; 정익중 외, 2018; 박재연 외 2020).

그러나 반드시 부모의 지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부모의 존재도 꿈을 꾸는 데 중요한 요인이지만, 사회적 연결망 또한 중요하다. 장은지와 최재성(202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비빈곤 집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지만, 빈곤 집단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청년들이 희망플랜사업을 통해 교육, 멘토링, 상담과 사례관리, 현금지원 등을 받음으로써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노혜진 외, 20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멘토나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을 통한 지지와 인정이 빈곤 집단의 꿈을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김경희 외, 2016; 성연주, 김지애, 2017).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은 20대 초중반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다. 사회적으로 공유된 청년의 연령 범주가 없고, 청년 세대에 대한 경계 역시 연구자에 따라 자의적이기 때문에 청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청년’의 범주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 경계가 끊임없이 새롭게 확정되기 때문이다(남춘호, 유승환, 2021). 발달심리학에서는 13세-23세까지를 청년기로 부르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를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단계로 정의한 안선영, 김희진과 박현준(2011)을 참고하여 2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연령대의 청년을 연구참여자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는 청소년기와 초기성인기 사이에서 역할실험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꿈을 준비하고 구체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제인 청년의 꿈과 준비 경험을 탐색하는데 적절한 연령대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제적 어려움¹⁾으로 월드비전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빈곤 청년 5명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공과 민간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비빈곤 청년 4명이다. 빈곤 청년은 인천, 경기,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남성 2명, 여성 3명이었으며, 희망진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기안전관리자, 소방공무원이었다. 비빈곤 청년은 서울, 충남,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4명으로 희망진로는 임상병리사, 화학연구원, 방송직이나 영업직, 청소년상담사 등 다양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no	성별	연령	학년/직업	지역	희망진로	비고
1	여	21	대학교2	인천	간호사	
2	여	22	대학교2	경기	사회복지사	
3	남	23	대학교4	충북	전기안전 관리자	빈곤
4	여	23	대학교4	인천	소방공무원	
5	남	22	취업준비	충북	사회복지사	

1) 구체적인 월드비전 사업참여자 선정기준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혹은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내), 중위소득 60%이하 가정의 청년임

no	성별	연령	학년/직업	지역	희망진로	비고
6	여	23	대학교4	서울	임상병리사	비빈곤
7	여	23	대학교4	충남	화학연구원	
8	여	24	대학교4	서울	방송업/영업직/금융직	
9	남	23	전문대2	인천	청소년상담사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드비전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빈곤 청년 5명은 월드비전의 추천과 기관 실무자 및 본인의 동의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비빈곤 청년 4명은 월드비전에서 수행한 꿈 실태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년 500명 중 심층면접에 동의한 41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연구진이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부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지 등의 비빈곤 여부와 참여의사를 확인 후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6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는 심층면접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 면담은 연구진 4인이 사전에 작성한 반구조화 질문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꿈의 내용과 꿈의 경로, 꿈 자본, 꿈의 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본인이 꿈꾸는 삶, 꿈을 꾸는 이유, 꿈을 향한 도움, 꿈을 이루는 데 겪는 장애물, 꿈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면담은 참여자가 접근하기 편안한 장소와 시간에 연구자가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연구참여자당 1회 실시하였으며, 1회 면담 시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진행하였다. 면담 장소는 빈곤 청년의 경우 각 지역 월드비전 내 상담실에서 진행하였으며, 비빈곤 청년의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의 스터디카페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취되었으며, 분석을 위해 필사하였다.

자료분석은 각 면담에서 두드러지는 점을 찾아 중심주제를 발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소주제를 발견하여 중심개념을 도출하는 주제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제분석 방법은 의미단위와 범주들을 넘어서는 통합적인 구조를 발견하려는 것으로(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아동의 꿈과 성장에 관한 연구(김경희 외, 2016)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연구(임주원, 김서현, 홍진주, 2022) 등 아동과 청년의 꿈과 자립 경험에 나타난 주요 주제를 발견하기 위한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 청년 세대는 무엇을, 어떻게 꿈꾸고 있는가?”라는 연구문제의 각 영역인 꿈의 내용과 꿈의 경로, 꿈 자본, 꿈 방식의 네 요소로 구분하여 청년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언제, 누구의 영향으로 꿈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 꿈을 꾸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인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각자의 꿈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해 가는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꿈을 꾸는지에 대해 빈곤 청년과 비빈곤 청년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를 위해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방법,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며, 불편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면접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익명성 보호를 위해 연구참여자의 이름을 비롯한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렸고, 연구를 위해 인터뷰 내용이 녹음된다는 것과 녹음된 내용은 외부 유출 없이 연구자료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일관성을 얻기 위해 연구자 4인이 충분한 의사소통과 논의를 진행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과제번호: 1041479-HR-202202-003).

IV. 연구결과

빈곤 청년과 비빈곤 청년의 꿈 준비 경험을 중심으로 꿈의 내용, 꿈의 경로, 꿈 자본, 꿈 방식을 탐색한 주요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빈곤 청년과 비빈곤 청년의 꿈 탐색 결과

구분	범주	하위범주	
		빈곤 청년	비빈곤 청년
꿈의 내용	내가 꿈꾸는 삶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 꿈을 꿀 여유가 없음	자유로운 삶 도움이 되는 삶
	꿈의 계기	보답하고 싶은 마음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	답고 싶은 어린 시절 롤 모델 교내 활동을 통한 꿈 탐색
꿈의 경로	꿈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람	미디어 속의 인물 학교 선생님의 영향	가족의 권유와 지지 친구들의 칭찬과 응원
	꿈을 향한 도움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진로 체험 프로그램 주위의 지원과 정보제공
	꿈을 향한 노력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함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함
			꿈을 향한 실천

구분	범주	하위범주	
		빈곤 청년	비빈곤 청년
꿈 자본	꿈의 장애물	멈출 수 없는 아르바이트 대인관계의 어려움 꿈 관련 정보와 지지체계 부족	부족한 경제적 뒷받침
	미래에 대한 낙관성과 희망	미래를 상상하는 즐거움 꿈을 향해 노력하지만 자신이 없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
	회복탄력성	힘든 시절을 극복한 경험이 힘이 됨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감	꾸준한 도전을 통한 성취감
꿈의 방식	꿈의 진정성	내 삶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직업 찾기 힘든 현실과 타협한 새로운 꿈 찾아가기	나의 적성에 맞고 보람 있는 직업 찾기

1. 꿈의 내용

꿈의 내용은 청년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꿈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꿈’이라는 용어가 가진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미래의 직업이나 경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삶의 자세나 지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으며, 미래 자신의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누가 어떤 꿈을 꾸는지에 대한 질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기에 꿈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청년들의 꿈은 무엇이며, 이러한 꿈의 내용이 빈곤 여부에 따라 다른지를 확인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꿈의 내용 질적 분석 결과

구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빈곤 청년	내가 꿈꾸는 삶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	불안한 하루하루를 벗어난 안정적인 삶 가족과 함께 오래 건강하게 잘 지내는 삶
		꿈을 꿀 여유가 없음	꿈을 생각할 틈이 없음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시급함
비빈곤 청년	내가 꿈꾸는 삶	자유로운 삶	자유롭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삶 나만의 공간에서 즐기는 삶
		도움이 되는 삶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보람을 느끼는 삶

1) 빈곤 청년

(1) 내가 꿈꾸는 삶

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

힘든 현실 앞에 내몰린 빈곤 청년들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불안한 하루 하루를 살다 보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심적으로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기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한 후 가족과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꿈을 이야기하였다. 이들이 바라는 꿈은 불안한 현실을 벗어나 가족과 편안하게 사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환경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또래 친구들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되고 건강한 삶이 이들이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였다.

만약에 관리자쪽으로 들어간다면 일단 안정적이니까 심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취업했을 때도 제가 돈을 버니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가 됐든 빨리 돈 벌고 싶어요. 돈 벌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으니까. 그 안정적인 걸 이루었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못 번다해도... (참여자 3)

이제 나중에 어떻게 지낼지는 그냥 가족하고 오래 건강히 잘 지내고 싶죠. (참여자 5)

② 꿈을 꿀 여유가 없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성인기로 진입한 취약계층 청년들은 어려운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꿈을 생각할 틈이 없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장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다 보니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었다.

상황을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사실 꿈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당연히 안좋으니까 제 꿈 생각할 틈이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생각조차 안해 봤어서 지금도 생각이 안나요.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참여자 3)

2) 비빈곤 청년

(1) 내가 꿈꾸는 삶

① 자유로운 삶

비빈곤 청년들이 꿈꾸는 삶은 자유롭게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삶, 출퇴근이 자유로운 삶을 사는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삶이 이들이 바라는 미래이다. 이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고, 재미를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MZ세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롭게 사는 삶이란 보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사장이 되는 것이고, 나만의 공간에서 사는 삶이며, 어떠한 참여자에게는 이민을 가서 해외에서 사는 삶이었다.

내가 사장이 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런 걸 꿈꾸는 것 같아요. 나만의 주택이 있고 꿈이 너무 크지만 2층 주택으로 나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참여자 8)

저 해외에서 살고 싶거든요. 이민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약간 정말 막연한 꿈이라면 막연한 꿈일 수 있는데 해외 임상병리사가 꿈이어서 (참여자 6)

② 도움이 되는 삶

청년들은 자신이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꿈도 있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냥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제가 잘하는 게 없어서 그냥 도움이 되는 사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다? (참여자 8)

내가 청소년들에게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고 내가 보람을 느끼는 직업을 갖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9)

2. 꿈의 경로

꿈의 경로는 꿈이 시간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다(김석호 외, 2017).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언제, 누구의 영향으로 꿈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 꿈을 꾸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인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등이 포함된다. 빈곤 여부에

따라 꿈의 경로상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꿈의 경로 질적 분석 결과

구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빈곤 청년	꿈의 계기	보답하고 싶은 마음	받은 것을 되갚고 싶은 마음 타인을 위해 일하고 싶은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따뜻한 기억
	꿈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람	미디어 속의 인물	드라마 속에서 꿈을 발견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고, 꿈에 다가감
		학교 선생님의 영향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 선생님의 영향을 받음
	꿈을 향한 도움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직업인 특강을 통한 한줄기 도움 실습을 통해 꿈에 다가감
비빈곤 청년	꿈의 계기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함	학점을 잘 받기 위해 노력함 토익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함
		다 읽고 싶은 어린 시절 롤 모델	어린 시절 나에게 잘해줬던 다 읽고 싶은 선생님 병원에서 가운 입은 사람이 멋있어 보임
	꿈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람	교내 활동을 통한 꿈 탐색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꿈을 찾음
		가족의 권유와 지지	나의 꿈을 함께 찾아 주는 부모님
	꿈을 향한 도움	친구들의 칭찬과 응원	나의 장점을 찾아주고, 응원해주는 친구들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진로시간에 꿈에 다가가는 방법을 알게 됨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업에 대해 더 알게 됨
		주위의 지원과 정보제공	부모님과 선생님의 긍정적인 지지와 조언 지인으로부터 직업 체험 기회를 얻음
	꿈을 향한 노력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함	학점, 자격증, 어학 능력을 위한 노력 전공관련 공부와 실습 열심히 하기
		꿈을 향한 실천	진로를 위한 정보검색을 하고 인터넷에 지원함 나의 꿈을 향해 편입을 하고, 대학원을 준비함

1) 빈곤 청년

(1) 꿈의 계기

① 보답하고 싶은 마음

빈곤 청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외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받은 것을 되갚고 싶은 마음에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힘든 시기 자신을 도와준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에,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타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마음 속에 남아 있었다. 미디어를 통해, 실생활에서 누군가를 돕는 직업을 알게 된 후 소방공무원의 꿈을 꾸기도 하였다.

저도 받았으니까 되잖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돌고 돌아서 이 학교에도 늦게 입학했거든요. 재수해서 들어간거라서... 그런만큼 교육을 막 따져가면서 학교도 원하는 데로 가고 싶은 만큼 사회복지에 열정이 있어요. (참여자 2)

제가 어릴 때 일곱 살 여덟 살 때 월드비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생활하는 데도 좋았고...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때 그때 사회복지사로 정하게 된 것 같아요. (중략) 이제 저도 커서 저처럼 지원받을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기도 하고... (참여자 5)

②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

힘든 어린 시절,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주신 선생님에 대한 좋은 기억은 진로를 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와의 사별로 인해 마음 둘 곳 없던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선생님들로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다. 힘든 시절, 따뜻한 추억은 청년이 되어서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으며, 그 따뜻했던 곳을 직장으로 삼고 싶었다.

유치원 때 기억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슬픈 얘기긴 한데 그 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살아계셨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엄마랑 사별하게 돼서 거기서부터는 사회복지사님들 하고 되게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좋은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서 이런 과로 오게 되지 않았나... (참여자 2)

(2) 꿈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람

① 미디어 속의 인물

빈곤 청년들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주위에 진로 관련 논의를 할 지지체계가 특별히 없는 청년들은 미디어로 직업을 접하게 되고, 그 직업에 대해 알게 된다. TV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직업이 좋아 보여서 그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였고, 유튜브를 통해 특정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진로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직업이나 진로를 직접 경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이 꿈과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사실 드라마는 고등학교 때, 의학 드라마만 쭉 봐왔었는데 그 때도 그냥 멋지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는 싶은데 저게 될까, 이랬는데 3학년 때 애들 준비하는 거 보니까 ‘그냥 질러?’ 이 생각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② 학교 선생님의 영향

빈곤 청년들이 꿈을 찾는 데에는 학교 선생님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족의 지지와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빈곤 청년들은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학교 선생님이 롤모델이 되며, 이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때 보건 선생님이 아무래도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3학년 때는 고등학교도 이제 넣고 나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 모든 시간을 다 보건 선생님이랑 보냈었어요. 길은 열려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 얘기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참여자 1)

(3) 꿈을 향한 도움

① 진로체험 프로그램

직업인 특강이나 실습 등 진로 관련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본인의 제한된 경험 안에서 꿈을 정하고, 꿈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직업인 특강을 들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고, 진로 준비를 하는 데 한 줄기 도움을 얻게 된다.

사회복지사 분이 한 분 오셔서 학교에서 강연해주신다거나 그런게 있으면 신청해서 들으러 가고 그런 거 했었어요 네. 아주 조금?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왔던 것만 토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거 들으면 한줄기 정도만 도움이 되요. (참여자 2)

(4) 꿈을 향한 노력

①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함

빈곤 청년들의 꿈을 향한 노력은 비빈곤 청년과 다르지 않았다. 학점을 잘 받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토익 공부를 하는 등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꾸준히 공부를 하기도 했으며, 좋은 직업인이 되기 위해 지식을 쌓기 위한 공부도 하고 있었다.

공부... 내신 챙기고 대학교 가야하니까 다 그랬던 것 같아요...자격증 공부도 하고. 보건쪽이나 아무튼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전공 자격증을 준비한다거나 토익 같은 기본 스펙을 준비해야지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참여자 4)

2) 비빈곤 청년

(1) 꿈의 계기

① 닳고 싶은 어린 시절의 롤모델

비빈곤 청년들은 어린 시절 자신의 롤모델을 닳고 싶어 하였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학교 선생님을 닳고 싶은 마음에 교사의 꿈을 갖게 되기도 하였고, 병원에 자주 다니다 보니 흰 가운을 입은 의료인들이 멋있어 보여서 병원에서 일하는 꿈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 주위에서 다양한 직업군을 접할 기회가 많은 비빈곤 청년들은 빈곤 청년들에 비해 보다 다양한 꿈을 꿀 수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000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이름도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을 왜 닳고 싶냐면 정말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종업식을 하잖아요.... oo는 애들도 많이 도와주고 착하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나중에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아서 이걸 주는거다 이런 식으로 애들의 눈높이에 맞게 얘기했는데...저한테 그렇게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서...(참여자 9)

중학교 때부터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큰 병원...대학병원 이런 데 병문안 많이 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마주치는 의료인들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가운 입고 일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서 그냥 막연하게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참여자 6)

② 교내 활동을 통한 꿈 탐색

한 참여자는 꿈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문과보다는 이과를 가는 것이 취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에 들어간 고등학교의 동아리에서 꿈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동아리 활동은 실험이나 소논문 작성 등 교과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알게 되고, 꿈을 찾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 화학실험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그 때 실험이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화학연구원의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계속 그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고등학교에서 진행했던 소논문 쓰는 활동들 덕분에...(참여자 7)

(2) 꿈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람

① 가족의 권유와 지지

막연한 꿈만 갖고 있던 청년들이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게 된 데는 가족의 권유와 지지가

영향을 미쳤다. 부모로부터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고,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전망에 대해 듣게 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비빈곤 청년들은 빈곤 청년들에 비해 꿈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부모님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얻는 과정 속에서 꿈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만 있었는데, 진로 시간에 의무기록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상담을 했죠. 그랬더니 그것도 좋긴 한데 아빠 친구가 임상병리사인데, 혹시 임상병리사는 어때? 이렇게 권유를 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일을 들어봤었죠. (참여자 6)

② 친구들의 칭찬과 응원

친구들의 응원도 꿈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기에 가족과 잘 대화하지 않았던 참여자는 친구들과 함께 진로를 이야기하고 고민도 하면서 꿈을 찾아 나가기도 하였다. 상담을 잘 해준다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청소년 상담 분야를 진로로 정하였으며,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친구의 격려가 힘이 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때 애들이 제 얘기를 듣고 아니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해주면 너는 참 상담이나 면담을 잘해주는 것 같다 너가 얘기해 주는대로 하거나 너가 얘기해 주는 걸 들으면 진짜 뭔가 질적으로 해결해주는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좋고 친구로써도 지내기 좋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여자 9)

(3) 꿈을 향한 도움

① 진로 체험 프로그램

현재의 꿈과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 중 하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의 진로 체험 관련 활동이다. 직업 체험을 하면서 원하는 직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관심 분야를 찾고, 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는 진로 관련 분야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적성을 찾아 진로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 중학교 때 진로 프로그램 그 직업 박물관 같은 거 있잖아요. 체험관 이런 데 갔었는데 현실에 대한 현실을 진짜 볼 수 있는? 내가 진짜 진지하게 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걸 그 직업 체험을 하면서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대학교 가서 바로 방송 쪽 알바를 시작했어요. 방송 스태프나 보조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분위기가 재밌어서 날 새고 그다음 날 바로 나가고 일주일 내내 그랬는데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8)

② 주위의 지원과 정보제공

주위의 관심과 지지는 청년들이 꿈을 준비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부모님의 관심과 조언 그리고 경제적 지원은 구체적으로 직업을 결정하고 관련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와 꿈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운 청년들은 학교 선생님의 조언이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정말 컸고요. 믿어주시는 게 제일 컸고 또 평소에 금전적인 지원이... (참여자 7)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디를 들어가면 너가 원하는 그 직업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대학교 사이트로 찾아서 들어가봐라. 이런 것도 그 당시에 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죠(참여자 9)

또한, 가족이나 지인 중에 관련 직업인이 있을 경우, 그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체험을 하면서 본인이 더 원하는 분야에 대해 알게 되고, 꿈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병원에 가서 기계를 보고 여기는 어떤 걸 하는 곳이고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되게 많더라고요. 파트가 그래서 그중에서 뭘 할까라는 걸 그때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파트도 되게 다양해서 일단 제가 일단 크게 3개 파트로 나뉘는데 그분이 했던 파트는 진검 파트거든요. 진검 검사 의학과인데 일단 거기는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채혈 때문에 채혈하기는 싫어서 거기 가고 싶지 않은데 그 채혈 외에도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구나. (참여자 6)

(4) 꿈을 향한 노력

①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함

빈곤 청년과 마찬가지로 비빈곤 청년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갖게 되는 불안한 마음에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런 저런 대외활동을 하지만 취업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었고, 학점과 영어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점이랑 영어 성적이... 아직은 만족할 정도는 아니고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참여자 7)

지금 닥쳐있는 건 시험기간이니까 시험을 보고 학점을 잘 받고 학교 졸업요건도 닥쳐 있으니까 그런거 하면서 스펙도 같이 채우면서 자격증을 중점직무 관련된 걸 한다면가 방학 때 중심으로 해야할 것 같아요. (참여자 8)

② 꿈을 향한 실천

비빈곤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진로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고 인턴 지원을 하기도 하였고, 실습을 통해 진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대학원 인턴 생활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대학원을 갈 수 있는 학교들을 검색하고 그리고 인턴 공개 모집을 하는 학교들을 검색해서 하다 보니까 UST라는 학교를 알게 되었고 이번에 인턴으로 가게 되어 가지고... (참여자 7)

그 외에 실습이나 이런걸 가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뼈저리게 느꼈던 건 내가 너무 청소년에만 집중했던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동과 청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9)

3. 꿈 자본

꿈 자본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꿈의 능력, 꿈을 꿀 수 있는 힘이다(김홍중, 2015). 개인이 소유하는 꿈 자본의 양과 내용은 개인의 경제/문화/사회자본과 부모의 자본, 사회의 꿈 생산 능력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김홍중, 2015). 즉, 꿈 자본이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자원들을 소유하기를 욕망하고, 현실 속에서 그 욕망을 조율하면서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다(김홍중, 2015; 김석호 외, 2017). 누군가는 더 꿈꾸고 누군가는 꿈꾸지 못하는 꿈의 불평등, 꿈 자본의 양극화가 빈곤 청년과 비빈곤 청년에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꿈 자본 질적 분석 결과

구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빈곤 청년	꿈의 장애물	멈출 수 없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로 진로준비 시간이 부족함 학원비와 문제집 비용이 부담됨
		대인관계의 어려움	소심한 성격에 진로 준비가 어려움
		꿈 관련 정보와 지지체계 부족	주위에 원하는 직업 관련 이야기를 물어볼 사람이 없음 혼자 고민하는 것이 익숙해짐

구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빈곤 청년	미래에 대한 낙관성과 희망	미래를 상상하는 즐거움	인정받고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
		꿈을 향해 노력하지만 자신이 없음	나의 롤모델을 따라 갈 수 있을지 걱정됨
	회복탄력성	힘든 시절을 극복한 경험이 힘이 됨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잘 성장한 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배움을 찾아감
	꿈의 장애물	부족한 경제적 뒷받침	자유로운 삶이라는 꿈을 잠시 뒤로 미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자신감
비빈곤 청년	미래에 대한 낙관성과 희망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	주위의 긍정적인 지지로 높아진 자신감
		꾸준한 도전을 통한 성취감	남들에 비해 부족하고 초라한 나
비빈곤 청년	회복탄력성	실패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꾸준히 도전함	실패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꾸준히 도전함

1) 빈곤 청년

(1) 꿈의 장애물

① 멈출 수 없는 아르바이트

빈곤 청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꿈의 장애물이 된다. 기숙사비와 학비, 학원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인해 꿈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공부만 하면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럴 수 있는 현실이 아니기에 돈을 벌면서 진로준비를 병행하고 있었다.

사실 금전적인거죠. 왜냐면 오전에도 사실 알바 안하고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물리적으로면 교과서랑 그런 것들? 만약에 학원까지 다니면 학원비용 이런건데...(참여자 3)

② 대인관계의 어려움

소심한 성격과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빈곤 청년들이 꿈을 준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친구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고, 직업인으로서 여러 사람과 만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이 커지기도 한다.

대학교 가니까 생각 차이도 너무 심하고 친구들과 트러블도 많고... 저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인간관계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공부는 둘째 치고, 그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공부하다 계속 생각이 나니까 자꾸 못하게 되더라구요(참여자 1)

일단 제 성격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약간 소심하고 잘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힘든 것 같아요. (참여자 5)

③ 꿈 관련 정보와 지지체계 부족

빈곤 청년들은 주위에 원하는 직업 관련 이야기를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였다. 인터넷으로 진로 관련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지만 한계가 있기에 가족 등 누군가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꿈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다. 고등학교 때도 멘토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청년이 된 지금도 멘토가 있으면 진로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다. 주위에 진로를 함께 이야기할 가족이나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졌다. 항상 혼자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어른에게 진로 관련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주변에 가족분들 계시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가족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어서 애길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도 한계가 있잖아요. (참여자 4)

혼자 생각해왔던 사람인데 어른한테 털어놓는다는 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또래 친구한테는 같은 나이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데...(참여자 2)

(2) 미래에 대한 낙관성과 희망

① 미래를 상상하는 즐거움

빈곤 청년들은 미래에 주위에서 인정받고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고, 꿈을 이룬 자신을 가족도 자랑스워할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이 꿈꾸는 직업은 곧 자신이 원하는 삶이기에 꿈이 이루어진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즐거웠다.

미래를 상상하면 즐겁죠. 룸메이트는 방사선과고, 저는 간호학과다 보니까 병원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누고 이런 케이스의 환자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들을 거의 매일 나누는 것 같아요(참여자 1)

② 꿈을 향해 노력하지만 자신이 없음

꿈을 이룬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지만 때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앞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낀다.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자신의 롤모델처럼 좋은 직업인이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원하는 선생님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롤모델이 될 수 있을까 라는거죠. 직업을 포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별로 힘들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참여자 2)

(3) 회복탄력성

① 힘든 시절을 극복한 경험이 힘이 됨

빈곤 청년들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한 경험이 힘이 된다. 그 어려움을 이겨냈기에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아무래도 엄마랑 사별한 사건을 극복한 게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한 게 큰 극복이지 않았나. 아무래도 조금 힘이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2)

②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감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온 빈곤 청년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진로관련 경험이나 학습을 할 기회가 줄었고, 진로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웠지만 선별진료소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분야 인력이 더 필요했기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경험을 통해 꿈이 더 확실해졌다. 또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공 공부를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는 법을 알게 된 것은 또 다른 수확이었다.

1학년 때는 아무래도 비대면이었고 실습도 없어서 진짜 재미없었는데 그 선별 진료소는 어떻게 보면 임상에 제가 뛰어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흥미를 느꼈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제 꿈이 더 확실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

2) 비빈곤 청년

(1) 꿈의 장애물

① 부족한 경제적 뒷받침

비빈곤 청년들은 학비와 학원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 참여자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위한 경제적 뒷받침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직업을 갖고 살고 싶으나 부모가 유학비용을 지원해주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삶, 외국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학생 신분이라 돈이 없기 때문에 꿈은 잠시 뒤로 미루어두고 있었다.

네 현실적인 문제는 돈이 없어요. 진짜 돈만 있었으면 저도 유학을 갔을 겁니다. (참여자 6)

(2) 미래에 대한 낙관성과 희망

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

비빈곤 청년 참여자 중 몇 명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감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위의 지지와 격려에 의해 키워진 것이었다.

자신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준 걸 들었을 때도 자신감이 불터라구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고 했을 때 너랑 안어울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참여자 9)

②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주위를 둘러보면 스펙이 좋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취업을 잘 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걱정하게 되고, 남들에 비해 부족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남들은 아침 점심 저녁 잘 먹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에 비해 나는 게으르고 새벽까지 안자고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고 그래요. (참여자 8)

(3) 회복탄력성

① 꾸준한 도전을 통한 성취감

한 참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도전을 한 결과, 중간에 뜻대로 안될때도 있었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꾸준한 도전을 통한 성취감은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글쓰기를 정말 잘하고 싶어가지고 대회가 있을 때마다 신청을 했는데, 나갈 때마다 다 떨어지더라구요. 근데 이걸 포기 못하고 고등학교까지 가게 됐는데 글쓰기 대회에서는 성과를 보진 못했지만 소논문에서 성과를 볼 수 있었어요. 목표가 있으면 꾸준히 도전하는거.. 지금 당장 눈앞에는 성과가 안 보일 수 있지만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구요(참여자 7)

4. 꿈의 방식

꿈의 방식은 청년들이 각자의 꿈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경영하고 관리해 가는가? 즉,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꿈을 꾸는지, 아니면 사회의 가치에 순응한 꿈을 꾸는지 등에 대한 양상이다 (김석호 외, 2017). 이러한 꿈의 양상에 대해 빈곤 청년과 비빈곤 청년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꿈의 방식 질적 분석 결과

구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빈곤 청년	꿈의 진정성	내 삶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직업 찾기	스스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음
		힘든 현실과 타협한 새로운 꿈 찾아가기	현실을 직시하고 꿈은 취미로 남겨둠 새로운 꿈과 목표를 향해 다시 도전
비빈곤 청년	꿈의 진정성	나의 적성에 맞고 보람 있는 직업 찾기	내가 하고 싶은 진로를 발견함

1) 빈곤 청년

(1) 진정성

① 내 삶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직업 찾기

빈곤 청년들은 스스로 자신의 꿈을 결정하고, 꿈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위의 권유나 영향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직업을 찾았으며,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주위에서 영향을 준 것은 없고 스스로 결정했어요. 소방공무원이 다른 것도 있지만 옷이 멋있었어요. 제복 같은거에 로망이 있었어서 그런 쪽도 알아보고 그러다가 제가 원하는 삶의 가치관과 적합하기도 하고 옷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했어요....(참여자 4)

② 힘든 현실과 타협한 새로운 꿈 찾아가기

자신의 가치관과 적성에 맞는 꿈을 스스로 찾아간 빈곤 청년들은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현실과 타협한 새로운 꿈을 찾기도 하였다.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음악가, 축구선수 등의 꿈을 키우기도 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지속하기가 어려워 꿈을 접어야 했

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꿈은 취미로 남겨둔 채 취업이 잘 되는 진로를 다시 찾아 나갔고, 새로운 꿈과 목표를 향해 다시 도전하였다.

저는 원래는 축구선수가 꿈이었는데(중략)... 고등학교 1학년때 갑자기 현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중략). 매달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많아서 기숙사 생활도 하고 전지훈련 같은데 가면 기본 100이상 나가고 그러니까... 그만두면서 기술쪽으로... 중1부터 고1까지 하다가 그만두고 고등학교도 실업 특성화고로 편입해서 자격증 따고 대학교도 전문대로 갔어요. (중략) 그냥 이과쪽이 훨씬 취업 잘되니까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도 계속 밀어주는 거기도 하고.. (참여자 3)

저 연주자 하고 싶었어요. 악기 연주하는 사람. 악기는 그냥 취미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참여자 5)

2) 비빈곤 청년

(1) 진정성

① 나의 적성에 맞고 보람 있는 직업 찾기

비빈곤 청년들도 자신의 적성에 맞고 보람 있는 직업을 스스로 찾고 있었다.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에 영향을 받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꿈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 동아리가 제일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소논문 쓰는 활동을 통해서 논문 같은 걸 쓰는 게 재밌어서... 동아리 부장을 하면서 하고 싶은 실험들을 찾아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때 제가 하고 싶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참여자 7)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 청년 세대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어떻게 그 꿈을 준비하고 있는지, 청년의 꿈 속에 세대 내 어떠한 격차와 불평등이 존재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청년 정책과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빈곤 청년과 비빈곤 청년의 꿈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탐색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꿈의 내용 탐색 결과, 청년 세대 내 꿈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기로 접어들어 취업준비와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빈곤 청년들은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시급해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벗어나서 미래에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 반면, 비빈곤 청년들이 꿈꾸는 삶은 자유롭게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었고, 자신이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이었다. 이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빈곤 여부에 따라 청년들은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인 꿈 자본에 차이를 보이거나 꿈의 유무나 내용이 달라진다는 선행 연구들(정익중 외, 2017, 2020; Kim, Kim, Lee, Kim, & Gowen, 2018; 정우연 외, 2022)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빈곤 청년들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서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누군가의 평범한 삶이 이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었고,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했기에 자신이 정말 원하는 꿈은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반면, 비빈곤 청년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면서 자유롭게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고, 재미를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MZ세대의 특징(김난도 외, 2020)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꿈의 경로 탐색 결과, 빈곤 청년들은 꿈의 계기에 대해 ‘보답하고 싶은 마음’과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힘든 시절, 자신을 도와준 분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자신이 성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위에 꿈을 함께 이야기 나눌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빈곤 청년들은 미디어를 통해 직업을 접하게 되고, 그 직업에 대해 알게 되거나, TV 드라마 속의 직업에 관심을 갖기도 하였으며, 학교 선생님과 교내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비빈곤 청년들은 어린 시절 자주 접한 직업인을 롤모델로 삼고 있었으며, 교내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찾고 꿈을 향한 도움을 받고 있었다.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빈곤 청년들과는 달리 비빈곤 청년들은 부모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얻고 있었으며, 부모의 친구 등 다양한 사회적 자본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이처럼 꿈의 경로에서도 청년 세대 내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위에 진로를 함께 이야기할 가족이나 어른이 없는 빈곤 청년들은 혼자 고민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미디어를 통한 정보에 의존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반면, 비빈곤 청년들은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꿈 관련 정보와 기회를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청년의 꿈에 있어 사회적 지지나 사회자본의 격차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성연주, 김지애, 2017), 빈곤 아동·청소년은 비빈곤 아동·청소년에 비해 진로성숙도는 낮으나 독립성은 강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족한 사회자본과 지지 속에서 홀로 꿈을 꾸어야 하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정익중 외, 2017, 2020).

셋째, 꿈 자본 탐색 결과, 빈곤 청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꿈 관련 정보와 지지체계의 부족이었다. 이들은 꿈을 위한 준비

를 하면서 자격증 시험비와 문제집 구입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기숙사비와 학비, 학원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와 진로준비를 병행하느라 시간이 부족하였다. 비빈곤 청년들도 경제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빈곤 청년들의 고민과는 달리 외국에서 살고 싶으나 해외유학 비용이 부족하여 자유로운 삶이라는 꿈을 잠시 뒤로 미룬 것이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 어려움은 아니었다. 이는 한국의 청년 빈곤이 청년기 빈곤과 아동 빈곤이 혼재되어 나타나기에, 청년기 빈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더불어 빈곤가구 청년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기존 논의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김수정, 2010, 2020; 김소형, 김경호, 2018; 정병오, 김교연, 백아름, 2019).

다음으로 꿈을 꿀 수 있는 힘에 대해 확인한 결과, 빈곤 청년들은 미래를 상상하면 즐겁지만 꿈을 이룰 자신이 없고 나의 롤모델처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힘든 시절을 극복한 경험이 힘이 되었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회복탄력성을 갖고 있었다. 희망은 절망과 고통의 사건들을 딛고 넘어서는 회복탄력성을 자신의 구성요소로 갖는다. 그래서 그것은 절망과 대립한다기보다는 절망적 체험의 한복판에서 의연하게 솟아나는 존재의 탄력적 감정에 더 가깝다(김홍중, 2015). 성장 과정 속에서 빈곤 청년들이 경험한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왔던 경험은 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비빈곤 청년들은 주위의 격려와 지지로 인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때로 주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남들에 비해 부족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위축되기도 하였다. 이들도 거듭된 실패 속에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도전한 경험이 힘이 되고 있었다.

넷째, 꿈의 방식에 대해 탐색한 결과, 빈곤 청년과 비빈곤 청년 모두 스스로 자신에게 맞고 보람 있는 직업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빈곤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힘든 현실과 타협한 새로운 꿈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내가 원하는 꿈과 내 앞에 놓인 현실 사이에서 어떤 꿈은 억압되거나 포기되고, 대립하는 꿈들 사이에 타협된 새로운 꿈이 품어지기도 한다(김홍중, 2015). 꿈은 자아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용되는데, 외적 조건과 내적 열망 사이에서, 가능한 꿈들의 비교 속에서, 환경에 따른 꿈의 조정 필요성으로 인해 빈곤 청년들은 꿈을 다시 꾸고 있었다(김홍중, 2015).

이와 같이 청년의 꿈 안에 세대 내 격차와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년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소심한 성격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신감 저하는 청년들이 꿈을 준비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힘든 청년들을 발굴하고,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청년기에 들어서면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 관리가 중단되거나 감소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진로와 자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지역사회 차원의 진로상담과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트라우마로부터 회복을 도우며, 내적 동기를 향상시킴으로써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부정적 생애경험은 꿈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이를 잘 극복한 경험은 오히려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가져와 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심리정서 지원은 아동·청소년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내에 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진로교육법」 제20조 ‘협력체계 구축’에 진로교육 단체 외에 심리정서 기관들도 포함하여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층 지원정책이 주로 경제나 노동 영역에 초점을 두어 기획 및 실행되고 있는데(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2021), 실제 청년들은 이들 영역과 더불어 심리정서적 자립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최상미, 유효은, 김한성, 2019; 김수완, 2022), 청년층 특히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더 위축된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는 청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사적 지지체계가 약한 빈곤 청년들이 긍정적인 지지체계를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제공하여 꿈을 찾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들이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지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년들은 유튜브 등의 미디어를 통해 직업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부모나 선생님, 친구 등 주변인들로부터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청년의 경우에는 사회적 자본의 부족으로 진로 관련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가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일자리 지원과 함께 직업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공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나 앞서의 심리정서적 지지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맞춰 온오프라인의 장단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다. 청년들에게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심리정서적 지지는 대면으로 제공하되, 양질의 정보나 교육 콘텐츠들은 보다 많은 이들이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등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들은 직업 정보를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 확인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의 확산에 따라 그 의존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곧 이들이 미디어나 디지털 매체를

통해 유입되는 정보들을 보다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진로와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꿈을 찾고,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로준비와 자립준비가 필요하다. 청년기는 아동청소년기의 꿈을 실현해 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진로 준비의 부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빈곤 청년들은 어려운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꿈을 생각할 틈이 없고,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다 보니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었다. 청년기는 교육에서 일의 세계로 본격적인 이행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원활한 진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우 학교 졸업 후 취업, 자립 등 성인기 이행에 있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니트(NEET : Not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청년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김기현, 배상률과 성재민(2018)의 연구에 의하면, 한 번 니트 상태에 빠진 청년들의 경우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 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부채, 생활안정 등 삶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김기현 외, 2021),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 및 예산은 부족하며(김기현 외, 2018), 청년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도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준비하기 어려운 청년에게는 학원비와 자격증 취득비 등 개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자립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교육 등 자립준비 프로그램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살펴보면, 「청년기본법」 제 17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내에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이 2023년도에 신설되었다. 이는 청년 세대 내 자립 불평등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항이며, 실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진로교육법」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책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기에 진입하는 청년기의 진로 지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진로교육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김기현 외, 2021). 이외에도 대학생의 진로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학교 내 상담센터나 진로센터 등을 통해 대학생 진로탐색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진로상담을 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매우 적은 형편이다. 그러므로 예산의 확대와 상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진로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빈곤 청년과 비빈곤 청년의 꿈에 대한 내용과 경로, 자본, 방식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청년의 진로와 자립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20대 초·중반 청년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함으로써 20대 후반과 30대 청년의 꿈 준비 경험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의 꿈을 탐색하고, 각 집단별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은 추후 연구의 과제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중심으로 빈곤과 비빈곤으로만 구분하였기 때문에 청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

참고문헌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57-79. doi:10.20970/kasw.2009.61.1.003
- 권소희, 안현주, 정혜원 (2000). 청소년의 진로의식성숙과 일의 가치에 관한 연구. **창의력개발연구소**, 4, 253-264.
- 김경희, 박근혜 (2013). 빈곤청소년의 꿈과 미래 설계경험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4(1), 113-134. doi:10.16999/kasws.2013.44.1.113
- 김경희, 박근혜, 김성원 (2016). 빈곤가정 아동의 꿈과 성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0(3), 183-210. doi:10.22867/kaqsw.2016.10.3.183
-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 (NEET) (연구보고 18-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일자리 (연구보고 21-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이향은, 이준영, 이수진, 서유현, 권정윤, 한다혜 (2020). **트렌드 코리아 2021: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21 전망**. 서울: 미래의 창.
- 김민선, 고은영 (2020).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진로탐색 행동, 진로미결정 간 자기회귀 교차 지연 효과 검증. **청소년문화포럼**, 62, 51-79. doi:10.17854/ffyc.2020.04.62.51
- 김석호, 주윤정, 성연주, 김지애, 김은지, 이상규, 김홍중 (2017). 한국 청년세대의 꿈-자본 측정. **문화와 사회**, 24, 289-331. doi:10.17328/kjcs.2017.24.007
- 김소형, 김경호 (2018). 20대 빈곤청년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 연구. **사회복지정책**, 45(3), 63-94. doi:10.15855/swp.2018.45.3.63
- 김수완 (2022). **청년 자활사업 참여자가 인식하는 자활의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 김수정 (2020).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청년 빈곤의 특수성. **한국인구학**, 43(2), 77-101. doi:10.31693/KJPS.2020.06.43.2.77
- 김은희 (2001). **빈곤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집단지도의 효과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혜, 정익중, 윤은영 (2022). 저소득 청소년 대상 장기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질적 평가연구. **학교사회복지**, 58, 81-114. doi:10.20993/jSSW.58.4
-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연구보고 21-R1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홍중 (2015). 꿈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부르디외와 벤야민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8, 32-72. doi:10.18207/criso.2015..108.32

- 남춘호, 유승환 (2021).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한국 언론의 청년담론 및 청년개념 분석. **지역사회연구**, 29(4), 237-266. doi:10.22921/jrs.2021.29.4.009
- 노경란 (2011). 빈곤 가정 청소년의 가정적·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인식 특성이 진로장벽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빈곤 가정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영역에서의 지원 활성화 관점. **교육연구논총**, 32(2), 81-105. doi:10.18612/cnujes.2011.32.2.81
- 노혜진, 남기철, 박미희, 이봉주, 이성학, 이신혜 (2019). 희망플랜(니트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변화과정: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1(3), 1-33. doi:10.19034/KAYW.2019.21.3.01
- 박은하 (2018). 취약 청소년·청년의 진로·직업역량 현황과 자립지원정책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5(10), 299-319. doi:10.21509/KJYS.2018.10.25.10.299
- 박재연, 박희숙, 조운호, 정익중 (2020). 아동청소년의 꿈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빈곤, 비빈곤 아동청소년의 꿈은 다른가?. **한국가족복지학**, 67(3), 173-208. doi:10.16975/kjfs.67.3.6
- 배영자, 심성지 (2013).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의 내, 외적 진로장벽과 사회복지 진로 결정 수준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29(4), 67-91.
- 성연주, 김지애 (2017). 꿈을 가진 청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61-175.
- 송동욱, 이기형 (2017). 불안정한 현실과 대면하는 이 시대 청년들의 삶에 관한 질적인 분석: '삼포세대', 그리고 '헬조선'이라는 호명에 대한 청년주체들의 체화된 대응과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4, 28-98. doi:10.46407/kjci.2017.08.84.28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Ⅱ: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1-R2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찬호 (2016).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민을 건 9급 공무원뿐인 헬조선의 슬픈 자화상**. 서울: 위즈덤하우스.
- 우석훈, 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서울: 레디앙
- 원지영 (2019). 가구 소득과 진로지도 및 상담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2), 638-549. doi:10.5392/JKCA.2019.19.02.638
-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연구보고 22-일반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수복 (2013). 진로성숙도 유형에 따른 빈곤아동의 동질집단 특성 연구: 빈곤아동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1, 67-100.
- 이광석, 윤자형 (2018). 청년 대중서로 본 동시대 청년 담론의 전개 양상. **언론과 사회**, 26(2), 77-127.

- 이승진, 황아리영, 정익중 (2021). 청소년의 꿈 잠재계층 유형과 영향요인. **보건사회연구**, 41(2), 64-82. doi:10.15709/hswr.2021.41.2.64
- 이영광, 김민수, 김민주 (2014).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변화·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사회과학연구**, 33(2), 157-179. doi:10.18284/jss.2014.12.33.2.157
- 이지혜, 이선훈 (2020). 진로이행기 청년의 ‘나답게 살아가기’: 전이경험으로서의 위기와 그 이후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유라시아연구**, 17(3), 129-166. doi:10.31203/ae pa.2020.17.3.006
- 임주원, 김서현, 홍진주 (2022). 자립준비청년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회과학연구논총**, 38(2), 145-186.
- 장은지, 최재성 (2021).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비빈곤학생과 빈곤학생의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23(3), 148-174. doi:10.19034/KAYW.2021.23.3.06
- 정병오, 김교연, 백아름 (2019). **청년 자립도전사업단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가이드북**. 충북: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정성경, 박환보 (2022). 대졸 청년의 진로역량 관련 요인 탐색. **핵심역량교육연구**, 7(2), 89-111. doi:10.52616/JCCER.2022.7.2.89
- 정성조 (2019). ‘청년 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23, 12-39. doi:10.18207/criso.2019..123.12
- 정우연, 조하영, 김석호 (2022). 무엇이 청년의 꿈을 가르는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본인의 역량에 따른 꿈의 내용 차이. **조사연구**, 23(1), 107-130.
- 정익중, 김지혜, 이화조, 이승진, 김재환, 조윤희, 변지영, 황우람, 박새롬 (2020). **2020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보고서**. 서울: 월드비전.
- 정익중, 박재연, 박희숙, 오은찬, 홍성욱, 변지영, 박새롬, 김재환, 조윤희 (2017). **2017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보고서**. 서울: 동그라미재단·월드비전.
- 정익중, 조윤희, 오은찬 (2018). 빈곤-비빈곤 아동청소년집단별행복감에 이르는 꿈 관련 변인 탐색: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적용. **학교사회복지**, 42, 209-236. doi:10.20993/jssw.42.10
- 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조손가정 아동의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0, 97-111.
- 최상미, 유효은, 김한성 (2019). 당사자의 목소리로부터의 빈곤 청년의 삶에 대한 탐색. **사회과학연구**, 26(2), 32-58. doi:10.46415/jss.2019.06.26.2.32
- 최수미 (2013). 성별에 따른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포부와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4(2), 213-234. doi:10.15753/aje.2013.14.2.009

- Frederick, S. (1999). *Discounting, time preference, and identity*, (Doctoral dissertation, Carnegie Mellon University).
- Kim, S., Kim, H., Lee, S., Kim, E., & Gowen, O. (2018). Lack of Dream-Capital among Korean Youths: Rationally Chosen or Culturally Forbidden?. *Development and Society*, 47(3), 347-370.

ABSTRACT

What and how do young people in Korean society dream?: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preparing dreams of poor and non-poor young people

Kim, Jihae* · Chung, Ickjoong** · Cho, Yoonho*** · Nam, Mi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youth policies and programs by exploring in-depth what the young generation of Korean society dreams of or aspire to, how they are preparing for their dreams, and whether there are gaps and inequalities within the generation in their dreams. To this e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nine people, including five poor young people and four non-poor young people in their early and mid-20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nalyzed by applying the topic analysis method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contents of the dream itself, it was found that poor young people wanted to live a stable and happy life, but could not afford their dream, and non-poor young people wanted to live a free and helpful life. Second,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path of these dreams, poor young people tended to be struggling alone because there were no family members or adults around them to talk about their careers, and non-poor young people were able to receive dream-related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from their families and acquaintances. Third, as a result of the search for capital to finance their dream, poor young people suffered from economic difficulties, interpersonal difficulties, and lack of dream-related information and support systems, and non-poor young people had increased their confidence that they can achieve their dreams through the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Namseoul University (jhkim@nsu.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ichung@ewha.ac.kr)

*** Senior Researcher, Child well-being Institute, World Vision Korea(yoonho_cho@worldvision.or.kr)

**** Master,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nomad_9612@naver.com)

encouragement and support from those around them. Finally,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way of reaching these dreams, both poor and non-poor young people were looking for jobs that fit their aptitude and were rewarding, but poor young people also found new dreams that were compromised with their difficult rea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policies to better support young people's dreams and careers were suggested.

Key Words: young people, dream, poverty, young people in poverty,
young people need